

# 이달 불교학술대회 '붓물'

5월은 불교학 관련 학술 단체들에게도 축제 달이다. 불교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주제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숙성되는 계절에 맞춰 불교 학술 세미나가 한꺼번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20여 불교학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학술대회인 불교학술대회를 정점으로 새로운 문을 여는 학술 대회가 잇달아 열린다. 주제의 새로움과 함께 신진 학자들의 발표 공간이 넓어진다. 대대적인 기대감도 크다. 21~25일에는 전 세계 20여 나라 학자들도 서울을 찾는다. 정기 학술 대회와 월례 발표회도 불교학 발전의 밑거름이다.

요즘 불교학계의 관심은 온통 4~5일 동국대 중앙당과 명진관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술대회에 모아지고 있다. 한때 발표 신청자가 221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에서 한국 불교학계 최대의 행사다. 최종적으로 공동 주제 발표자 4명을 포함해 11개 본과에 200명이 발표한다. '결집'이라는 이름이 걸맞게, 한국 불교학계의 깊이와 폭 등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6월 창립하는 한국불교문화학회는 창립 총회에서 앞서 25일 학술 대회를 먼저 연다. 주제는 '한국 불교 문화학의 방향과 방법론'이다. 대표 발기인 사제종교사(충남대)는 "그 동안 불교문화는 불교학이나 미술 등 각

표 마당을 주기 위한 학술 대회도 열린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은 가을에 개최하는 국제 학술 대회와는 별도로 제1회 춘계 천태학술대회를 31일 연다. 박경준(동국대) 김일권(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익(위덕대) 교수들 제외 한 15명 대부분이 강사급 학자들이다. '천태 열불 수행'과 자

## 제1회 춘계 천태학술대회, 신진학자 연구 지원 한국불교문화학회 창립, 정기 학술 세미나 등

## 4일 결집대회 정점 이룰듯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를 거뒀다. 이제는 학자들 간에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고 일반에 알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총론적인 '불교문화학의 위상과 전망' '방향과 방법론' 발표에 이어 불교와 문화, 미술, 서지, 음악, 민속 등 각 분야별 발표가 뒤따른다.

내일의 불교학을 이끌어갈 신진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발

유 주제가 반반씩이다. 정기 학술 대회와 월례 발표회는 크게 주목받지는 않아도 불교학 발전의 밑거름이다. 학자들이 상시적으로 연구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명석' 이자 학계의 '상수원'이기 때문이다. 대각사상연구원은 2일 '백용성 스님과 한국 불교 역경의 역사적 조명'을 주제로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연다. 김영배 교수(동국대), 김광식

◆불교학 관련 학술 세미나 일정(5월)

단 계	내 용	날 짜	장 소	연 락 처
대각사상연구원	백용성 스님과 한국 불교 역경의 역사적 조명	2일	대각사 3층 대강당	02)261-3108
한국불교 교육·학술·연구 단체협의회	한국불교학술대회	4~5일	동국대 중앙당·명진관	02)220-3108
천태불교문화학회	사이버 정체성과 불교적 인성론	9일	문화회 교육실	02)726-0940
세계천주교회지도협의회(SCCA) 서울대회	세계 문화유산 디지털	21~25일	서울대 박물관	01)226-8004
한국불교문화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	25일	계동신 23사	04)483-8214
보조사상연구원	불교의 심리학의 탄생	25일	동국대 석암 세미나실	02)720-5215
불교문화연구원	한국신 무언어 문예연구	30일	동국대 석암 세미나실	02)220-8507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제1회 춘계 학술대회	31일	관문사	02)483-0212
중앙승가대학교	근대 이후 인문학에 나타난 불교관	31일	중앙승가대	03)380-7716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 보광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장), 윤창화 민족사 대표, 최철환 동국대 경원 부장이 발표한다. 중앙승가대학교는 31일 '근대 이후 인문학에 나타난 불교관'을 주제로

제1회 춘계로 30일 불교 세미나를 연다. 보조사상연구원은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을 주제로 25일 월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천태불교문화학회는 16일 '사이버 정체성과 불교적 인성론'을 주제로 3차 포럼을 연다.

21~25일에는 미국, 영국, 호주 등 20여 개 나라의 학자 40여 명이 서울을 찾는다.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주최, 고려대장경연구소 협찬으로 열리는 세계천주교회지도협의회(CECA) 서울대회의 주제는 '세계문화유산 디지털 네트워크의 과제와 전망'이다. 개별적으로 구축한 문화유산 관련 DB를 어떻게 표준화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가 주요 논의 사항이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yny@buddhapa.com

# “우리 고고학 사전 발간 학계 반세기 숙원 풀어”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유전 소장



“해방 이후 반 세기만에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고고학 사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고고학계의 숙원이었던, 우리 손으로 씌어진 고고학 사전이 나왔다.

지난 10년 동안의 준비 끝에 최근 두 권짜리 <한국 고고학 사전>을 발간한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유전(사진) 소장은 “혼자서라도 평생을 걸고 싶었던 사업”이라며 “비로소 우리 고고학도

‘사전’조차 없는 학문의 빈곤함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국내 첫 고고학 사전 편찬 작업은 조 소장이 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장으로 있던 1992년 시작했다. “어렵고 방대한 작업이라 생각하면서도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한국고고학학회와 공동으로 2년 동안 수록 용어를 선정했고, 7년 동안 4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원고를 집필하고 수정,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11명

의 원로학자가 감수에 참여했다. 200자 원고지 1만7천여 장 분량으로 한국 고고학 연구 성과를 집대성했다.

“발간에 처음 뛰어든 게 1970년대인데 1971년 무녕왕릉을 시작으로 황룡사터, 감은사터, 미륵사터 등을 파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고고학이란 학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멧모르고 뛰어다니던 시절이었다. 갖다놓고 보는 사전이라야 일본 고고학 사전이 전부였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개발에 따른 발골이 늘어나면서 손 쓸 틈이 없었

## 상고사학회와 공동 10년만에 ‘햇빛’

## 유적·탑 등 분야별 전문사전도 계획

사전은 용어의 유적 등이 모두 포함된 일종의 종합관 성격으로 만들어졌다. 기본적인 용어와 황룡사, 미륵사 등 중요 유적들에 대한 설명, 세계 각지의 중요 유적 및 고고학 이론 등을 1천669 항목으로 설명했다.

조 소장은 “완벽하지는 않다. 이제 맡쪽 하나를 박은 격으로 봐 달라”며 “앞으로 10년 계획으로 신라 유적 사전, 탑 사전, 고분 사전 등 ‘분야별 전문 사전’을 발간해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금동사리함 사리병 받침(폭 13mm).

## “신라인 ‘나노기술’ 가졌었다”

문석환 씨, 감은사지 출토 금동사리함 분석

이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단연 금제종탁이다. 종탁이란 일종의 풍경(風聲)이다. 금동사리함에서는 이런 종탁 5개가 수습됐는데, 두께가 겨우 0.1mm, 길이 5~7mm, 무게는 0.04g에 지나지 않는다. 시력이 좋은 사람도 눈으로는 형태를 구분하기조차 힘

21~23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 금속학회 주관으로 열린 ‘고대 금속 역사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출토 사리함 제작 기술 고찰’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밝힌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 문석환 씨는 “보존과학이라고 하면 부식되거나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해 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유물에 대한 재질 분석 등을 통해 당시의 제작 방법이나 원료, 원료 산지 추정 등 유물의 특징을 규명해 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또 사리함에서 출토된 청동색 유리에 대한 남 동위원소 분석 결과 원료 산지가 한국 중남-남부 광산임도 밝혀냈다. 예전의 연구 결과를 보면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납 역시 경북지역 광산이 원산지다. 반면 신라 호우층에서 발견된 청동기의 납 동위원소 분석 결과는 원료 산지가 중국 요령성 일대로 밝혀진 바 있다.

## 음악·내각·도금·누금 고급기술 동원 폭 0.2mm 땀질 1300년 지나도 튼튼

들다. 더 놀라운 것은 0.3mm밖에 되지 않는 누금 알갱이를 폭 0.2mm로 땀한 것이 13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는 사실이다. 출토 당시 출과 청동녹으로 씌여 있던 금동사리함에서 신라인의 금속 공예 기술을 규명해 낸 것은 보존과학의 힘이다.

신라인들도 나노(Nano, 1나노미터는 1/10억)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1996년 해체 당시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공에서 나온 금동사리함은 신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즉, 녹인 금속을 주물틀에 내는 음각, 선을 내는 내각, 금속을 입히는 도금, 알갱이 모양의 금덩이를 금속 표면에 붙이는 누금(鑲金) 기술 등이 빠짐없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냈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8권) 개정 증보판이 10년만에 디지털 버전으로 출시됐다.

<엔사이 코리아(EncyKorea)>(동방미디어)란 이름으로 책자 없이 CD를 6장과 DVD 1장으로 나온 개정 증보판은 북한과 사회주의 관련 인물, 새로 등장한 제도나 사건, 최신 연구 성과 등 기존 6만여 항목에 새로 1만여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원고지 45만 장에 해당하는 문자 텍스트를 비롯해 사진 4만장, 동영상 500종, 음향 250종, 지도·도면 3500종 등 방대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갖췄다. 여기에 포함된 순수 불교 분야 항목은 3200개다. 성철 스님,

##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증보판 CD롬 6장에 담아

광덕 스님, 송암 스님, 벽암 스님, 이기영 박사 등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말 사이에 열반하거나 작고한 불교계 인물 50여 명이 새로 들어갔다. 북한 지역 60여 개 사찰과 동국역경원 등 15개 단체, 새로 지정된 불교 문화재 등 220 항목이 추가됐다. 정보화 시대에 맞춰 디지털 버전으로 집대성한 이 사전은 ‘활용성’에 가장 초점을 뒀다. 종이 사전의 경우 정확한 검색어를 알아야 찾아볼 수 있다는 단점을 다양한 검색 기능으로 극복했다. 제목(항목)으로 찾지, 본문 내용에서 찾지, 유형으로 찾지 등을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지정문화재, 우리 고장의 문화, 백두대간 따라가기 등의 기획 메뉴도 디지털 버전이기에 가능한 서비스다.

## 불지의 생각

### 석굴암 모형관

최근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72명이 동참한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에서 28명(39%)은 이에 대해



### 토함산 이외 지역에 건립 40%

건립은 하회 토함산 이외 지역에 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25명(35%)은 현재 계획대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19명(26%)은 어느 곳에도 건립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만약 석굴암 모형관이 지어진다면 탐방해볼것느냐는 질문에는 52명(72%)이 한다, 20명(28%)이 안한다고 응답했다. 임원태 기자

# 사찰 납골탑. 이제 무한 21이 함께 하겠습니다

- ◆ 우리 모두는 불자들입니다.
- ◆ 스님과 불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 ◆ 스님과 불자를 믿음과 정성으로 섬깁니다.

## 무한21 영답은.

1. 결로 방지 및 통풍에 역점을 두어 제작.
2. 최상의 품질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
3. 사찰 신도관리 프로그램 무료지원.
4.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관리.
5. 납골탑 분양관련 제반업무 지원.

전통 불교미술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8각형 납골탑



편리한 개폐식 봉분실



탑신부 내부의 중앙 유품실



결로방지 및 신속한 통풍구조



■교장려 문화■ 선도하는 (주)무한 21.

143-823 서울 광진구 구의 1동 223-65호 동영빌딩 3층. 전화: 02)447-8847~8 팩스: 02)447-7071 www.muhan21.com